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MYSTERIOUS HOUSE ON HOARDER HILL

가제 : 마술사 할아버지와 사라진 할머니

저자 : Mikki Lish, Kelly Ngai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20년 3월 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9-12세 모험



* 캐나다, 체코,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미국 판권 계약

* TV 시리즈로 제작 중 - 트레일러 영상 현재까지 조회수 100만 회 돌파

* 마법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추적하는 두 용감한 남매의 이야기

고고학자인 엄마와 아빠가 스페인으로 중요한 탐사를 떠난 동안, 헤디는 남동생 스펜서와 함께 할아버지 댁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3층짜리 큰 저택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존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 전에 유명한 마술사였지만 큰 사고가 일어난 후부터는 다 그만두고 거의 집밖으로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은둔자처럼 살았다. 와이파이도 없고 게임기도 없는 황량한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견딜까, 싶었던 헤디와 스펜서의 걱정은 도착한 첫 날부터 싹 사라진다. 할아버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한 방에 몰래 들어간 순간, 두 남매 앞에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를 풀고 연기처럼 사라진 로즈 할머니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스스한 하얀 백발에 인자한 웃음을 잃지 않는 할아버지는 로즈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금세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곤 했다. 엄마 아빠가 나지막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오래 전 이 시기에 할머니가 ‘없어졌다’는 말을 잘 기억해 둔 헤디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쭙는다. 망설이던 할아버지는, 남동생인 피터 할아버지와 함께 온 나라를 돌면서 기막힌 마술 쇼를 이어가던 어느 날 객석에 앉아 있던 아름다운 로즈 할머니를 처음 만나 바로 사랑에 빠졌고 그 이후 어디에서 공연을 하든 늘 꼭 붙어 다녔다며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을 회상한다.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았던 할아버지는 어떤 물건이든 눈 앞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신기한 마술 상자 ‘칼레이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할머니와 영영 이별하게 만든 무서운 장치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어느 때처럼 마술 쇼가 시작되고 가끔 마술사의 조수로 무대에 함께 오르던 할머니가 칼레이도 마술을 함께 했는데, 뭔가 단단히 잘못됐는지 상자 속으로 사라진 할머니는 되돌아오지 못했다. 공연을 보던 관객들로 깜짝 놀랐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로즈 할머니를 자기 손으로 잃어버린 충격도 가시기 전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할아버지를 살인범으로 체포했고 최고의 마술사는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살인마로 전락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왜 할머니 사진만 보면 그렇게 눈물 짓는지 다 이해하게 된 헤디는 마술을 그만두고 이런저런 물건들을 수집해 두었다는 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할머니 사진을 한참 들여다본다. 먼지가 잔뜩 쌓인 액자 속에는 갓 태어난 헤디의 엄마를 소중하게 안고 있는 할머니와 그 옆에 미소 지으며 서 있는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돌아서서 나가려는 헤디의 귀에 작은 말소리가 들린 것이다. 놀라서 돌아보니, 그 액자에서 갑자기 글자가 쏟아져 나왔다. “날 찾아줘”라는 글자가 하나씩 액자에서 툭 떨어진 것이다!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어쩐지 찾아달라는 말이 할머니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느낀 헤디는 스펜서와 함께 비밀이 가득한 할아버지의 집을 샅샅이 뒤져 보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이 할아버지 집에 처음 도착한 날, 엄마아빠가 동네 어귀에서 잠시 길을 잃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 마치 따라오라는 듯 날개를 움직이던 새하얀 까마귀도 다시 헤디의 눈 앞에 나타난다. 속는 셈 치고 까마귀를 따라간 헤디는 지붕에 뭔가 할머니와 관련된 중요한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집 안에서 지붕으로 나갈 수 있는 숨겨진 길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헤디와 스펜서의 조용한 탐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할아버지가 마술사로 한창 활동하던 시절 신문 스크랩을 모아둔 낡은 폴더에서 나란히 함께 여러 장의 사진에 찍혀 있던 의문의 남자, 그리고 수시로 할아버지를 찾아와 꺾꺾 웃으면서 헤디, 스펜서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가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기색이 역력한 피터 할아버지가 ‘수사’를 방해하는 것 같다는 헤디의 직감은 사실로 드러난다. 할아버지에게 원한이 있는 듯한 ‘노바디’라는 이름의 그 수상쩍은 인물은 헤디와 스펜서에게 할머니가 사라진 날, 시종일관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할아버지가 얼마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는지 그 증거를 보여준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죄책감에 혼자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걸까? 헤디는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만, 진실이 무엇이건 자기 손으로 확실하게 밝혀 내리라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다. 그러나 그 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비밀을 깨운다. 바로 할아버지의 곁에서 모든 공연을 함께했던 동생, 피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라지게 만든 진범이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환호와 박수갈채는 늘 형이 독차지한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질투를 느낀 피터 할아버지는 문제의 마지막 공연 날, 실수 한 번 한 적 없는 형이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유치한 마음으로 칼레이도의 중요한 부품 하나를 공연 직전에 몰래 빼버린다. 로즈 할머니를 해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 부품 때문에 칼레이도는 마술 도중에 고장이 나버렸고 결국 사람 하나를 없애고 만 것이다. 피터 할아버지는 빼 둔 부품을 다시 끼워서 할머니를 되돌아오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 작은 부품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그마저도 실패한다. 헤디와 스펜서는 사라진 부품을 찾고 할머니를 되살리는 것만이 수십 년간 가족을 분열시킨 이 비극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마법과 반전, 수수께끼가 계속되는 전개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미키 리시(Mikki Lish)는 여러 음악가, 배우들과 함께 작업해온 호주 출신 각본가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 켈리 응아이(Kelly Ngai)도 호주 출신 각본가로 호주에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YOU'RE NEXT
가제 : 다음은 네 차례야
저자 : Kylie Schachte
출판사: JIMMY Patterson Books
발행일: 2020년 6월 23일
분량 : 320쪽
장르 : YA 소설



*** 인기 TV 시리즈 '리버데일'과 영화 '파이트클럽'이 결합된 듯한 미스터리 스릴러 데뷔작**

‘더럽게 운도 나쁜 아이.’ 플로라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상황을 2년만에 또다시 겪고 경찰서를 나갈 때 수군대는 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꽂혔다. 밤늦은 시각에 길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전에 정말 목격자인지 목격자인 척 하는 범인인지 가려내려는 형사들의 집요한 물음에 진이 다 빠지도록 대답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두 번이나 경험했으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했다. 하지만 플로라에게 이번 사건이 더 충격인 이유는 똑같은 일을 겪어서도, 살면서 한 번 제대로 볼 일도 없는 시체를 코 앞에서 봐서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사랑하는 친구였기 때문이다.

2년 전인 열네 살 때 플로라가 처음 발견한 루시 맥도널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경찰이 지금까지도 그런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뛰어난 관찰 능력과 예리한 추론 실력을 바탕으로 사립 탐정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그런 답답함이 큰 영향을 주었다. 뉴욕에서 정식으로 사립 탐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도, 경력도 다 아직은 맞지가 않아서 공식적인 활동은 불가능하지만, 플로라의 집요한 추적과 항상 발빠르게 핵심 단서를 찾아내는 능력을 잘 아는 경찰들은 아르바이트를 쓰듯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 8개월 넘게 말 한 마디 섞을 기회도 없었던 아버지가 학교에서 갑자기 성큼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넬 때도 플로라는 최근 수십 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흉악범의 지명수배 전단지들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1학년때 학생회장 선거 운동에 우연히 참여하면서 처음 본 1년 선배 아버에게 반해버린 플로라는 이후 오랫동안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고만 있다가 지난 해 여름, 마침내 전해질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여름 방학에 플로라의 엄마가 머물고 있는 독일로 3주간 휴가를 다녀온 사이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학교에서든 길에서든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도 모두 받지 않았다. 플로라는 휴가를 떠나기 전,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던 것에 아버지가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넨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던 중, 플로라의 예민한 촉이 뭔가를 포착한다. 아버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낀 플로라는 지금도 탐정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연락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든 늦은 시각에 플로라는 서둘러 와 달라는 아버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자전거로 미친 듯이 달려가던 플로라는 거의 다 와갈 때쯤 고요한 밤

하늘에 올려 퍼지는 세 발의 총성을 듣고 깜짝 놀라 자전거에서 거의 떨어질 뻔한다. 불길한 예감대로, 아버가 알려준 위치로 갔을 때 아버는 총에 맞아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렇게 또래 여학생이 눈 앞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는 광경을 두 번째로 보게 된 것이다.

헤로인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세 살 때 어린 자신과 엄마만 두고 집을 나갔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엄마가 동생 올리버를 임신하고 겨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던 그 즈음부터 플로라는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 전직 CIA로 추정되지만 과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할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비밀을 찾아내는 법을 배운 플로라는 무능하고 느려터진 경찰 대신 대체 누가, 왜 아버를 죽였는지 직접 찾아내기로 다짐한다. 우선 아버가 쓰러진 채로 발견된 뜬금없는 장소 주변부터 살살이 뒤지던 플로라는 근처에서 만든 지 얼마 안 된 듯한 커다란 지하 터널을 발견한다. 상당히 긴 그 터널 끝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놀랍게도 한참을 따라 들어가자 땀 뚫린 입구가 보이고 덩치 큰 남자가 지키고 선 출입구 뒤로 엄청난 환호와 음악소리가 들렸다. 아무 것도 묻지 않고 20달러를 달라는 문지기에게 돈을 건네고 들어선 그곳에서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백 명이 둘러싼 커다란 링 위에 분명히 또래로 보이는 엷된 얼굴의 아이들이 맨몸으로 싸우고 요란한 차림을 한 사회자가 마이크를 쥐고 싸움을 부추기거나, 판돈을 더 걸라고 외치고 있었다. 커다란 경기장 한 쪽에는 술을 마실 수 있는 바도 가설되어 있었다.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이 절실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하루에 500 달러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링에 오르고, 온 몸이 다 터지고 멍들고 부러질 때까지 악착같이 싸우는 그들에게 돈을 거는 삶이 무료한 부자들이 모여드는 파이트 클럽이었다.

밤마다 위험천만한 불법 격투가 벌어지는 비밀 클럽의 존재를 알게 된 플로라는 그곳에서 실력자로 통하며 꽤 오랫동안 활동했다는 '선수' 한 명에게 접근한다. 우락부락한 다른 남자들에 비해 체구는 작지만 독특한 기술로 두 배는 더 큰 상대도 제압할 줄 아는 발렌타인은 플로라의 끈질긴 추궁에 선선히 자신이 아는 정보들을 다 이야기해준다. 처음에는 아버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이곳에서 링에 올랐을 것이라 생각했던 플로라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아버가 이 피비린내 진동하는 잔인한 도박의 장을 처음 만들고 운영해온 주축임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단서와 함께, 플로라는 이 클럽에서 싸움을 하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간 피해자들이 있었고 발렌타인은 그렇게 여동생을 잃은 피해자 가족 중 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경찰도 이 위험한 클럽의 정체를 알면서 묵인해왔다는 것, 그 암묵적인 외면은 이 지하 격투장을 불법 돈 거래에 유용하게 써온 거물급 정치인들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내막까지 알아낸다. 그러나 아버의 죽음에 얽힌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간 순간, 플로라에게 가족들까지 전부 처참히 없애버린다는 누군가의 섬뜩한 협박이 전달된다. 이대로 진실을 덮을 수도 없고 진실을 위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게 된 플로라는 어떤 선택을 할까? 팽팽한 긴장이 끝까지 이어지는 인상적인 스릴러다.

<저자 소개>

카일리 삭트(Kylie Schachte)는 새라 로렌스 칼리지에서 글쓰기와 연극, 심리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현재 오리건 주에서 10대 여학생들의 과외교사, 멘토로 활동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